



도로는 국내 수송물동량의 90%이상을 책임지는 경제의 혈관역할을 톡톡히...



제16회 “도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김석준 의원님,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님,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족식을 갖는 “한국 길 포럼”의 초대 총재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우리 도로교통분야 발전에도 큰 경험과 식견을 갖고 계신 오명 건국대 총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로교통인 여러분!

오늘은 도로교통인들의 생일이자 경부고속도로 개통 37주년을 기리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5개노선 3,100Km의 고속도로를 비롯, 10만 2,000Km에 달하는 거미줄 도로망 구축을 통해 낙후된 국토를 재건하고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으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를 포함한 글로벌 도로망 구축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우리의 도로교통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행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낸 경부고속도로 개통당시의 가슴 벅찼던 감회와 그후 여러 도로를 더 연결해 나가면서 다함께 느꼈던 역사적인 순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날 우리는 불굴의 투지와 열정 하나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조국에 새 길을 내고 희망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도로는 국내 수송물동량의 90%이상을 책임지는 경제의 혈관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도로위에 첨단 IT기술까지 접목시켜 질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2010년 세계 ITS대회 부산유치”에 성공한데 이어 12월엔 필리핀 개최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총회에서 우리가 회장국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었습

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제2회 도로교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발전된 위상을 대내외에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 개방식 10개구간에 이어 서울과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등 수도권 6개 폐쇄식 구간에 처음으로 첨단 무정차 요금 시스템인 하이패스를 시범 도입, 운영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민·관이 함께하는 “한국 길 포럼”까지 탄생시킴으로써 우리의 도로교통산업은 더욱 힘찬 비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은 향후 5,6년간 매년 50만대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상비 증가와 투자재원 축소 등으로 인해 도로 확장 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추가 도로망 확충에 더 많은 지혜를 짜내는 동시에 이 도로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 확대 구축키로 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차질 없이 안착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로의 날을 맞아 협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도로교통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에도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6.

한국도로교통협회 회장 손 학 래